

# GMP 귀국 보고서

## 인적사항

성명	최연주	학번	
이메일	ellie0715@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Public Administration	(국가) 미국
기 간	2017. 1. ~ 2017. 12.	<b>[귀국일: 2017년12월23일]</b>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월 19일

신 청 인: 최연주  (인)

●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덴버의 날씨는 4계절이 뚜렷한 편이며, 한국 날씨와 유사하다. 겨울이 길고, 눈이 5월말까지 오지만, 건조하고 햇빛이 강하여 눈이 빨리 녹는 편이다. 여름에는 햇빛이 매우 강하여 덥고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다, 습도가 높지않아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덴버는 또한 고지대이므로 처음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은 숨쉬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동안 다소 피곤함을 느낀 후 곧 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임차 및 비용:** 기숙사는 학부생 위주로 배정이 되고 4인 1실, 월 1,400 달러로 매우 비싼 편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주로 덴버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지역의 아파트를 이용한다. 덴버의 아파트 비용은 매년 오르는 추세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편이다. 위치와 시설에 따라 임차 비용은 다양하지만, 덴버 downtown 은 1bed, 1 bath 기준으로 월 사용료가 1,700 에서 2,000달러 정도 되고, 2bed, 2 bath는 월 2,000 에서 5,000 달러 정도 된다. 덴버에서 자가용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지역의 아파트는 1bed, 1bath 기준으로 월 1,200 에서 1,500달러이며 2bed, 2bath는 월1,600 에서 2,000달러 정도로 다운타운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일반 주택을 단기간 임대 하기는 어렵고, 외국인들은 주로 학군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깨끗하고 편리한 아파트를 이용한다.

**차량구입:** 차량은 중고거래 사이트나, 직접 거래 등 다양한 경로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미국은 차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운전면허:** 한국-콜로라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됨에 따라, 콜로라도 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한국 국민들은 필기 및 실기시험, 추가적인 운전자 교육없이 콜로라도 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가서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간단한 검사를 하면, 1-2주 정도 뒤에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필요 서류: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합법적 체류 증명 서류, 여권, 콜로라도 거주지 증명하는 서류 등)

**대중교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개인차량을 이용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RTD 라는 경전철을 이용한다. 매우 깨끗한 편이며, 노선도 다양하여 이용하기 편리하다. 택시는 주로 자동차 공유서비스인 우버(Uber) 나 리프트(Lyft)를 이용한다.

**자동차 보험료:** 보험회사나 에이전트 또는 계약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보험료가 다양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회사인 GEICO 기준 및 한국 운전경력 인정 시, 6개월 보험료는 1,000 달러 정도이다.

●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UCD의 SPA (School of Public Affairs)의 전반적인 수업구성 및 교수님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공행정석사(MPA) 프로그램은 NASPAA(Network of Schools of Public Policy Affairs and Administration)의 인증을 받았으며, CU 캠퍼스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미국행정 및 정책에 대한 기본 개념은 전반적으로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교수님들께서는 한국학생들을 배려하여 한국과 미국 정책의 비교 분석 및 토론

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미국학생들의 한국정책 및 행정에 대한 관심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수강과목 대부분이 CORE 과목으로 다양한 수강선택의 기회가 없었던 점은 아쉬웠다.

●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수강과목:** UCD에서의 총 수강과목은 총 8과목이다. 5과목은 CORE 과목으로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Service, The Policy Process and Democracy,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Professional Ethics,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그리고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Behavior 이다. (KDI 에서 동일 과정을 수강한 경우, elective 과정을 선택할 수 있음) 나머지 2과목은 elective 과목으로 선택 수강이 가능하며, 마지막 1과목은 졸업을 위한 Capstone Seminar 이다. 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core 과목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KDI - UCD 연계과정은 1년 안에 8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UCD 는 겨울학기가 있어서 elective 한과목을 겨울학기에 수강하고 나머지 과목을 봄학기에 수강하거나, 봄학기과 여름학기에 나눠서 수강한다면, 여름방학을 보다 길고 알차게 보낼 수 있으며, 가을학기에는 캡스톤 수업과 프로젝트에 전념 할 수 있다.

**수업방식:** 수업은 대부분 토론 및 발표 수업으로 이루어 진다. 일부분 설명식 수업이 있기는 하나, 수업 대부분이 학생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수업의 평가 방식은 시험중심과 프로젝트 중심으로 나뉜다. 시험은 수업시간에 배운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develop 하는 서술형 시험으로 구성되며, 프로젝트 제출은 case analysis, policy analysis 및 research project 등 다양한 주제를 분석하는 과제로 이루어 진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미국정책 및 행정 중심이므로 미국행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미리 숙지하거나, 연습 후 수업에 참여한다면,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캡스톤:** 캡스톤 작성은 시간배분과 사전설계가 중요하다. 가을학기에 관련 수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캡스톤 작성을 시작하나 귀국을 위한 정리 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질적 시간은 3개월 정도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늦어도 여름방학까지 캡스톤 주제와 구성 등을 미리 고민해 둔다면 훨씬 수월히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콜로라도 덴버는 뉴욕이나 샌디에이고 같은 대도시는 아니다. 그러나, 대도시처럼 다운타운에는 쇼핑센터, 영화관, 마트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다운타운을 조금만 벗어나면, 자연을 바로 만날 수 있다. 따라서 대도시의 장점과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생각한다. 꽤 큰 규모의 아울렛과 쇼핑 센터가 여러 군데 있고, Aurora 와 Westminster 에는 한인마트(H mart) 가 있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또한 1시간 거리에 아름다운 산과 강, 역사 유적지 등이 있어 주말에는 가족들과 여행하기 좋다.

또한 미국은 다양한 community 가 활성화 되어 있다. 현지 사람들을 사귀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 현지에 있는 community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무료관람일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추천한다. 보통 미술관 등의 입장료는 성인기준으로 \$10 이상으로 비싼 편이다. 매달 초 무료관람일을 지정하고 있는 덴버 미술관처럼 다양한 이벤

트 등을 활용한다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KDI 에서 1년간의 교육과정은 UCD 과정을 수료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덴버 생활이 훨씬 수월 했던 것 같다. 덴버는 한국인도 많고 한인 마트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다. 또한 지역 정보나 이벤트 정보들을 적극 활용하여, 미국의 전통적인 문화 행사 등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다

●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입국 이동경로:** 입국 시 이용항공은 United Airline이며 도쿄 나리타 공항 경유 덴버 국제 공항에 도착하였다. 미국 입국 시 경유지를 미국내 도시로 할 경우, 환승 시 입국 수속을 해야 하고, 짐을 찾아서 새로 부쳐야 하므로, 환승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도쿄 경유 시, 짐을 찾지 않고 환승만 하면 된다

**병원 및 예방접종:** 미국에서 병원을 이용하거나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덴버에서 병원을 이용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보통 1주일이 걸린다. 또한 예방접종도 다양하지 않으며 의사를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고, 다른 기관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 따라서, 특수 지역으로 여행을 가실 계획이 있다면, 미리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1년동안 너무 즐겁고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교과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교수님과 친구들과 소통한다면 많이 배우고 한국문화도 알릴 수 있는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방학동안에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 여러 지역들을 여행하면서 평생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KDI 에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수업도 열심히 들으신다면 UCD에서는 보다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GMP 귀국 보고서

## 인적사항

성명	양동혁	학번	
이메일	ganse@lh.or.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 Denver / Master of Public Admin (국가) USA
기간	2017.01~2017.12 [귀국일: 2017년12월3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교학처장 귀하

2018년 2월 5일  
신청인 : 양동혁



# GMP 귀국 보고서

## 인적사항

성명	양동혁	학번	201611162
이메일	ganse@lh.or.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 Denver / Master of Public Admin (국가) USA		
기간	2017.01~2017.12	[귀국일: 2017년12월3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교학처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덴버는 콜로라도 주 주도로 기후는 대체로 양호합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더라도 고산지대여서 겨울 날씨가라도 해가 비치면 공기는 차지만 햇빛이 강해서 한국만큼 겨울에 춥지는 않았습니다.

3월부터 해가 길어지면서 서머타임을 하고 여름에는 햇빛이 강해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운전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건조한 여름 더위라서 한국에서 느꼈던 습하고 더운 날씨에 비하면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가을에는 로키산맥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가을처럼 단풍이 아름답고 날씨도 서늘하고 차츰 서서히 추워지면서 겨울이 오는 듯 합니다.

덴버에는 인근에 한국 마트도 여러 개 있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덴버는 뉴욕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작지 않은 도시라 다양한 레스토랑, 그리고 양조장 등 다양한 음식과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Liberal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해서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UC Denver는 가을학기에 Capstone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가을학기 전까지 코어과목(필수과목) 5개를 들어야 하고 추가로 1개 선택과목을 봄학기에 들었습니다.

한 학기에 6개 과목이라 다소 부담이 없지는 않습니다.

또한 학기말에는 6개 과목의 과제를 하느라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신에 봄학기에 6개 과목을 들어서 가을학기에는 2개 과목(Capstone 및 선택과목)을 들어서 부담은 없었지만 Capstone에 대한 주제를 한국에서부터 정하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아서 다소 어려웠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한국학생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셨고 또한 한국의 정치나 기타 행정에 대한 궁금한 점을 들어주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미국상황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다 보니 배경지식이 없으면 수업시간에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수강신청은 학교 입학허가서를 받고 나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200달러 선입금을 해야 되서 카드로 계산을 하였으며 봄학기에 6개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6개과목을 한꺼번에 수강해서 봄학기 수업료가 많이 비쌉니다.

대신에 가을학기에는 봄학기에 비해 학비가 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Intro Public Admin-Public Srvc는 미국행정학 입문과정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느껴질수

도 있지만 미국 행정 조직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이 없거나 배경지식이 없다면 수업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나 몰라서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한국 행정조직에 대한 것도 궁금해 하셔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Economics and Public Finance는 KDI의 AMPP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 수업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연습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써서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미국에 대한 것은 다른 학생들이 다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면 이 경우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고 그것을 꼭 수업마다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어떤 수업보다도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

Policy Process-Democracy는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런 언론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배우고 고객의 입장에서 정부에 어떻게 의견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페이퍼를 썼습니다.

Public Service Leadership은 공직사회에서의 윤리에 대한 내용으로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과 어떠한 상황에 주어졌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Evidence-Based Decision-Making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지 5회에 걸쳐서 페이퍼를 작성하면서 통계도 연습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American Pub Service Environment는 미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다양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을 초빙하여 각 기관에 대해 설명을 하여 무엇보다 실무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Negotiation-Conflict Resolution은 민원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연습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Capstone Seminar는 소논문으로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것은 의뢰인이 학생에게 의뢰인이 일하는 기관에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어떠한 추천사항이 있는지 학술적인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지도교수, 제2지도교수는 학교 Faculty에 소속된 교수님들이 논문을 검토하고 지도하여 주시고 제3Reader는 의뢰인이 됩니다.

Capstone 발표시 제3Reader는 한국에서 화상으로 참석하여 발표내용을 듣고 Capstone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함께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에 있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의뢰인을 찾는게 어려웠고 그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다소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Capstone에 대해서 한국에서부터 어떠한 주제를 할지 정하고 가는 것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4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는 입학허가서를 받고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면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한 관련된 사항이 블로그에 많이 등록이 되어 그대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는 개인적인 내용을 약간 물어보고 공부하는 이유 및 학비를 지원해주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봅니다.

출국은 해외여행과 같아서 어려움은 없고 입국시 학생비자와 해당 자료를 보여주면 어렵지 않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 5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공부가 어렵거나 영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즐기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